

北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 책임자 찾기

문대통령, 대북특사 고심
이낙연·정의용·서훈 거론
특사 언제 파견할지도 관심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접촉'의 형식과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노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수순으로서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 해법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核) 협상장에 나오게 할 '다음 수'가 긴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고려하는 첫 번째 카드로는 단연 '대북특사 파견'이 꼽힌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과 접촉하는 방법으로는 대북특사 파견 외에도 지난해부터 남북 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노동당 통일전선부' 라인 등이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가지는 무게감이나 국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역시 확률이 가장 큰 것은 대북특사 파견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1일 한미정상회담과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입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특사 관련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가 북미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도 대북특사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이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김상곤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바 있다. 북한과 이뤄지는 대화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동일한 멤버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북한을 향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사 언제 파견할지도 관심사다. 트럼

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한 만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 파견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현시점에서의 특사 파견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요인으로 꼽혔던 '단계적 보상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얻지 못해서다. /연합뉴스

전남 섬·해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도가 섬·해양 관련 사업 및 정책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보완에 나섰다.

전남도는 섬의 날 행사 개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섬문화 엑스포 유치, 해양치유단지 조성, 마리나, 크루즈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14일 "지난 12일 섬문화 엑스포, 마리나,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 등 '섬·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섬·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계획'은 지난해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이어 지난 2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섬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광행구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 강신겸 전남대 교수,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 등 섬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전남의 섬 해양관광 정책 비전과 목표, 세부사업 과제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계획(안)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섬 분야 사업으로 섬의 날 행사 개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섬문화 엑스포 유치 등을 담고 있다. 해양 분야는 해양치유단지 조성, 마리나,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라남도도 추진해 온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보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일 전남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전문가, 섬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2-3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의 섬과 해양자원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에너지산업 해외 수출 지원 나서

5G기업 50곳 발굴 목표 5년간 35억원 투입

전남도는 에너지 '5G기업' 50개사 발굴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35억원을 들여 '에너지신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 나선다.

'5G기업'이란 녹색에너지 기반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지역 공동체와 동반 성장하는 수출강소기업을 의미한다.

전남도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을 포함시키고,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에너지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역시 전남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대상은 분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다. 에너지 기업에는 에너지 산업과 전후

방 연계효과가 큰 에너지 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한다.

전남도는 해외 진출 계획, 매출,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 3가지다. 수출 희망 기업은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 인증 취득, 해외 현지 판매망 개척, 현지 마케팅 등 기업의 수출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4월 중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에너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모집 공고 등 사업 일정과 세부 정보는 사업 전담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http://www.g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美정상 3차회담 대화 공감에도 양보없는 기싸움

美 '빅딜' - 北 '스몰딜' 입장 고수 돌파구 난망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일단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한편 3차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비핵화 방안에 있어선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쓴 글에서 김 위원장과 관계가 '훌륭하다(excellent)'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이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북미관계를 대립에서 대화로 돌려놓은 원동력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뚝다운' 외교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유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단계적 상응 조치를 맞바꾸면서 신뢰를 쌓아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입장에서 물러나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연합뉴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미술계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다음 달 개막하는 제 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위원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돼 참가국 전시관과 작가를 심사한다. 79명이 참여하는 올해 본전시에는 이불, 강서경, 아나카 이 등 한국작가 3명도 참여했다.

이화여대 서양화학과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미술대학 서양화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임야·단독섬

바로잡니다. 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급매(주택) - 광안구 도천동 주택(병2) 대지 109㎡ 7천만원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아울렛 중 2층 전유 38㎡ 은행1억 매도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양양동 대령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영광 영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천면 월출산 밑 4차선 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영광 영산면 비닷가 땅 2191㎡ 펜션 건물 2동 380㎡ 수영장. 매도 3억7천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물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앞 땅 405㎡ 건물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도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점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급매

-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6차선 도로점,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 대출-20억5천만원
- 시세/감정가-약 40억
- 모든업종 개발가능
- 분할매매 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부고

고 이재복 광주서석교회장로(시무)님께서 2019년 4월 13일(토) 향년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광주서석교회에서 삼가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4일

- 출관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7시
- 출관예배장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 1분향소 (TEL : 062-220-3352)
- 출관예배시간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6시 10분
- 장지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선영

미망인 : 박 성 자 권사
아 들 : 이 상 영 며느리 : 서 은 형 상 우 안 지 은

- 호상 : 정 종 채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서석교회
담임목사 강주성 외 당회원 일동